

입학사정관제 고1부터 준비하라

생활기록부 기록 꼼꼼히... 관심분야 수상실적 큰 도움

동아리 활동 적극 참여... 교외보다는 교내생활 충실히

서울대가 최근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정원을 79.4%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건국대는 KU자기추천 전형 선발인원을 91명에서 206명으로 늘렸다. 전체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의 약 11% (4만20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은 드물다. 전문가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노리는 학생의 경우 고교 1학년년부터 자신의 진로와 장래 꿈에 맞춰 꾸준히 학내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수상실적 등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입학사정관이 비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학생의 희망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했느냐 여부를 눈여겨 보기 때문이다.

◇**학생부를 확인하자**=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부는 기본적인 전형 자료다. 많은 학생이 고3이 되어서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를 위해 학생부를 검토하고 봉사활동 등에서 누락된 기록을 찾는다. 그러나 이미 기

록이 된 것은 수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 학생부를 열람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내 활동에 충실해야**=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대체로 교외 수상실적을 통해 낮은 내신을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비교과 활동의 우선순위는 학교다. 이에 따라 교외 수상 실적보다는 교내수상, 외부 활동보다는 교내 동아리 활동 등이 바람직하다. 학교생활에 충실했다는 인식을 입학사정관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은 필수**=자신이 희망하는 동아리가 학교에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동아리 활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노력이 입학사정관 눈에 해당 관심분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 최소 2년 정도는 해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동아리를 새로 만들 때는 오랜 기간 중단 없이 할 수 있을 활동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장래와 밀접한 활동해야**=많은 수험생이 다양한 비교과 실적을 쌓으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봉사활동 시간도 많고 교내 외 수상 실적도 다수인 수험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매우 유리할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활동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종 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희망 진로와 이를 연계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부각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다다익선'은 좋지 않다. 수상실적이 많다고 해서 높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수상실적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교내 물리,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거나 교내 축제 시 솜사탕 기계를 만들어 보는 활동들이 바람직하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학교생활에 충실하되, 고1,2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비교과 영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2학번 새내기 되던 날 "소원이 이루어져라"

는 의미 있는 입학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오전 동신대 체육관에서 2012학년도 입학식이 끝난 뒤, 신입생들이 자신의 소원을 담은 풍선을 띄우며 대학생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신입생이 도열한 상태에서 딱딱하게 치르는 기존 형식의 입학식을 탈피, 신입생이 주인공이 되는 의미를 담아 대학생활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음악으로 지역민과 소통

'행복어울림' 합창단 창단... 8일까지 공개모집

전남대 평생교육원(원장 송진한 국어교육과 교수)이 지역민과 친밀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자 '행복어울림' 합창단을 창단하고, 오는 8일까지 1기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합창단은 평생교육원 강사 및 원생

을 포함해 시민, 전남대 교직원, 전남대 총동창회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원은 총 5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7월 중 창단 발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합창단은 소리를 통해

개인의 긍정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합창단 지원자는 오는 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오는 12일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릴 예정이다.

송진한 원장은 "주민과 대학과의 막연한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시민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의는 062-530-3875, kahan@jnu.ac.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창의적 문화리더 양성에 힘 쏟는다

'문화초대석' 개설... 이진숙·정여울·조윤범 등 강의

'인디영화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윤성호 영화감독, '음악계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현악사중주단 '파르텍스'의 리더 조윤범,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폭넓게 작업하는 문화평론가 정여울, 국내 최초로 러시아에서 러시아 미술사를 전공한 큐레이터 이진숙 등 오늘날의 한국 문화예술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조선대 강단에 선다.

이들은 조선대가 창의적 문화리더 양성을 위해 2012학년도 1학기 교양과목으로 개설한 '문화초대석' 강의를 맡는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 강좌는 올 1학기에도 한국의 저명한 문화예술계 학자, 예술가, 비평가, 활동가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므로써 체계적이고 새로운 문화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21세기 창의적인 문화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문화적 안목과 감수성을 갖추고,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학제 간, 장르 간 통섭적 이해와 융복합적 사유와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강좌이다.

강좌는 6일 박선희 책임교수(신분방송학과)의 '문화리더의 역할'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 오후 4~6시 서석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0일에는 윤성호 영화감독이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작은 이야기의 힘'을 강연한다. 서강대를 거쳐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영화연출학을 전공하고 2001년 '삼천포 가는 길'로 데뷔한 윤 감독은 단편영화인 '졸업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부문 선제상을 수상하고 그의 첫 장편영화 '은하해방전선'도 부산국제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부문인 뉴 커런츠 부문에 초청되는 등 독립 영화계의 주

목받는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월 3일에는 이진숙 큐레이터가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가'를 강연한다.

이어 4월 17일에는 현악사중주단 '파르텍스'의 리더 조윤범씨가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90분에 듣는 서양음악사'를 강연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씨는 '파르텍스'를 통해 클래식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켰으며 뛰어난 연변과 글 솜씨, 디자인과 컴퓨터 실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5월 1일에는 황광민 전라도담극 발행인 권결집장이 '진짜 문화는 지금 여기에 있다'를 강연한다.

5월 15일에는 철학자 강신주씨가 '인문정신이 없다면 지성인일 수 있을까?'를 강연하며, 5월 29일에는 문화평론가 정여울씨가 '시네마테라피와 문화멘토링'을 강연한다.

'문화초대석' 강좌는 전공과 상관없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062-230-6179.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천저·한독일인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울항이 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한정)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 **주요취업업무** : 중심상업용지, 상가/주택, 주차장용지, 혁신도시주변토지 등

사실분, 파실분의 방문상담을 환영 합니다.

나주혁신도시투자전문
슬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061)333-7077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619-3651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354-321 위치: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델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 원룸, 투룸, 쓰리룸

◆ **〈토지구함〉**

- 지역 : 관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지연복지 •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 **〈모델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지연복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 **〈토지 매도〉**

- 관산구 도천동 지연복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 비이동 지연복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 **〈시외 매도물건〉**

- 물류청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다가구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감정가5억9천만 최저가4억2천만

◆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변(상업지역) 대지330평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오치동 4층상가건물 대지114평 건평199평 감정가5억1천만 최저가3억5천만

◆ **단독주택**

- 북구 오치동 2층단독주택 대지67평 건평65평 근린주택 감정가1억8천만 최저가1억3천만

◆ **근린주택**

- 동구 지산동 2층근린주택 대지263평 건평94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은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산리 향일당현병방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관산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망좋은 차랑진입가능 현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 매매 8천만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 대 지 : 257평
- 연건평 : 900평
-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 용자금 : 10억원
-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 방안면적 : 106평
- 보3억5천만원
- 월 650만
- 용5억포함
-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중 주거지역 토지구함

-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FAX)223-1772 1772 011-602-2532 (광주영흥 신문점, 대인동 소흥사거리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